

"개성공단 중단 6년...지금도 공장돌릴 날 기다려"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 부회장

"6개월이면 풀릴것" 생각
고박 6년간 희망고문에 한숨
쫓겨난 125개 입주기업
존폐위기속 생존 발버둥
95%가 "다시 돌아갈 것"

김성훈 기자 입력 : 2022.02.09 17:33:05 수정 : 2022.02.09 19:07:23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가 끊긴 이후 꼭 6년이 지났다. 하루아침에 공단에서 쫓겨난 125개 입주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로 한반도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기약 없는 희망고문은 현재진행형이다.

9일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매일경제와 만나 "일단 입주 기업이 살아남아야 공단이 다시 열리더라도 경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을 뚫었다. 이 부회장은 공단 중단 이후 입주 기업이 정부에서 경험보험금과 일부 피해 지원을 받았지만 생존에는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입주 기업들은 정부가 파악한 유동자산 피해액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211억 원을 추가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목숨 줄을 붙잡고 있기 위해 정부가 확인한 손실만이라도 우선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를) 보상받는 것에 준해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도 죽어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입주 기업들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또 위기에 놓인 입주 기업이 각종 바우처 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턱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설 명절 직전에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내린 합헌 판결을 언급하며 한숨을 쉬었다. 입주 기업들은 2016년 당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6년 만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정부 결정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입주 기업에 대해 응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보상과 지원을 해준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과 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명했던 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이는 공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바라는 입주 기업의 목소리를 남과 북이 받아들여 합의서에 포함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은 고강도 무력시위와 맞대응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기업들과 한 약속을 결국 저버렸다.

이 부회장은 개성공단이 신나게 돌아가던 시기 입주 기업 공동 브랜드인 '시스브로(SI SBRO)'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남북 형제자매들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만든 제품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의류기업 나인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속옷은 당시 중소기업 제품 전문 홈쇼핑 채널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시장에서도 사랑받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매일 출퇴근하며 북측 근로자들과 부대끼던 그 개성공단은 이제 가깝고도 먼 옛날이야기가 돼버렸다.

그는 "개성공단은 1시간대로 출퇴근이 가능했고 우리말이 통하는 데다 아직 없는 근

로자들의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안정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공단이 다시 열린다면 개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주 기업도 95%에 이른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개성공단이 북측에도 살아 있는 시장경제 교실 기능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단이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 남북 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길어야 6개월이면 다시 열릴 줄 알았던 개성공단이 6년이 되도록 닫혀 있다"며 답답해했다. 중단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재개에 대비해 고용을 유지하고 바이어들과의 신뢰를 지키느라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도 후회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이 재개돼 북측 근로자들과 함께 신명 나게 공장을 돌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남아 있겠다고 다짐했고, 아직 살아 있다.

[김성훈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